



인명진 목사, 구원 등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인명진 전 한 나라당 윤리위원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께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인명진 새누리 비대위원장 논란 확산

야 “한달새 말 바뀌어…파트너 부적합”…비박 “보수신당 폄훼”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인명진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내 비주류도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인 내정자가 야권과 함께할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며 “불과 한 달 전에 인 내정자가 ‘새누리당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인 내정자는 새누리당의 무모한 생명연장을 위한 조연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과거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주장했듯이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주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오는 27일 새누리당 탈당을 예고한 가칭 ‘개혁보수신당’창당준비위원회회의 오신환 대변인은 “인 내정자가 새로운

보수정당을 향한 우리 보수신당의 고뇌에 찬 결단을 마치 당내 권력투쟁 결과로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적절한 공세라며 맞받았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인 내정자를 공공연히 흠집 내고 있다”며 “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 정국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데만 매몰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9일에 전국위원회도 열어 비대위원장 지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 내정자는 전국위 개최 시점까지 비대위원 인선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인명진 비대위는 6번째 비대위 체제다. 하지만, 인 목사 내정을 놓고 시민사회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인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긴급회의를 열어 윤리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임 목사를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 지도부 개편…분위기 반전 나선다

정당 지지를 담보 속 창당 전 보수신당에 추월당해

29일 원내대표 경선·다음달 15일 전당대회 ‘주목’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당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은 물론 당 지지율도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쟁 진영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공식 창당도 되지않은 개혁보수신당의 지지율도 국민의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에서 정권 장출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 약화와 호남 정치권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지도부 개편이 주

목되고 있다. 우선 1월 1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를 놓고 박지원-정동영 의원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정 의원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핵심 변수는 전체 당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남 당원들의 표심이다. 1인 2표라는 점에서 박지원 의원이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 당원 표심 확보에 성공한다면 당권 고지에 상당히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에 대한 정치적 피로감도 상당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도 주목을 끌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조배숙 정책위의장의 4선

중진조와 김성식 원내대표-권은희 정책위 의장 재선 조의 맞대결 구도다. 일찌감치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주 의원은 연륜과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국민의당 창당을 전후해 넉 달여 동안 원내대표를 지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기 전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반면 김성식 의원은 참신함과 정책적 전문성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연륜을 상쇄할 방침이다. 고향은 부산, 지역구는 서울이라는 점에서 호남에서 벗어난 전국 정당화를 이룰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안철수 사당화’ 탈피를 주장하는 호남 중진 그룹과 ‘호남당 프레임’ 극복을 주장하는 안철수 그룹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제외한 35명의 의원 가운데 18표만 확보하면 원내대표에 당

선된다. 당내에서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인 주 의원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례대표 및 호남 지역 일부 초선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눈치를 살피는 흐름도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 정치권이 국민 의당 지도부를 장악, 조기 대선 국면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원내대표 선거를 공고하고 2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할 계획이며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현행 당헌·당규상 박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5월까지이지만, 당헌·당규 부칙 개정을 통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헌·결선투표 놓고 文 vs 非文 대치

안철수·박원순·손학규 등 논의 공론화…문 “어렵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잠룡들이 개헌과 결선투표 등의 이슈를 놓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국민의당이 지난 23일 ‘즉각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민주당 비문(비문재인) 진영 인사들도 개헌 논의 공론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개헌론에 한 걸음씩 다가서는 등 ‘비문 진영’이 야권의 선두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초 귀국해 개헌론을 들고 나올 경우, 개헌론을 둘러싼 합종연횡은 대선 지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표적 개헌파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개헌론 주장이 터져 나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충돌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두고도 야권 내부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결선투표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표와 민주당 내부 주자 간의 대치 전선으로 확대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야권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로 ‘대세 군히기’를 원하는 문 전 대표와 막판 역전의 가능성까지 열리는 결선투표제를 거

부할 이유가 없는 다른 야권 주자들 간의 쟁점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연일 “결선투표제를 반대하는 건 기득권 정치논리”라며 사실상 문 전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주자들도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공동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는 문 전 대표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비박 탈당과 내일 교섭단체 등록

1차 30명선…창당 준비 속도

새누리당 비박계가 집단 탈당을 이틀 앞둔 25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함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탈당 관련

간담회를 했다. 창준위는 26일에도 이번 주말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탈당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는 27일 1차 탈당을 하고 곧바로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비박계 1차 탈당의 최대 관심사는 국민 의당 의석수(38명)를 넘어 원내 3당이 될 수 있을지 여부다. 그러나 1차 탈당에는 30명의 의원만 탈당을 선언, 국민의당 의

석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 창준위 한 관계자는 “1차 탈당 선언은 30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탈당을 선언한 비박계는 지난 23일 회동을 하고 우선 ‘개혁보수신당’(가칭)이란 당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전략기획팀 등 7개의 팀을 신당 추진위 내에 구성해 창당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내교섭단체 등록 후인 오는 28일 정강정책의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20일을 전후로 창당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kpark@

2년 情 못잊어…

손학규 강진 방문

군민 간담회·백련사서 환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2년 동안 집거했던 강진을 찾았다. 손 전 대표는 강진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던 지역주민에게 감사의 표시하고 부친상을 당한 강진원 강진군수를 위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에 서울 일정이 있었지만 모두 취소하고 수행비서 1명만 데리고 강진에 내려왔다. 손 전 대표는 “강진에서 2년 넘게 보살펴 주신 강 군수를 비롯한 군민께 감사를 드린다”며 “22일 국민주권개혁회의의 광주·전남 보고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성원에 주신 시·도민의 뜻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장례식을 찾아 강 군수를 위로하고 주민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재회했다. 손 전 대표는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나라를 바꾸라고 주문하고 있다”라며 “특권과 패권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조문을 마친 손 전 대표는 군민들과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으며 백련사를 찾아 스님들과 환담했다. 이어 2년간 지냈던 도굴에 들러 당시를 회상한 뒤 밤늦게 상경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경매	병원 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	상가 주택 감정가 2억9천, 최저가 2억9천 서구 금호동 / 2층 / 대지 57평 건물 65평 / 안집 32평
	골프연습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광양시 성황동 / 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50타석 / 실외스크린 12층 / 중마초등학교 서측	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 4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 일반상업지역 / 54호실 / 코너 / 수익률 14.7%
	상가 감정가 16억, 최저가 16억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 4층 중 1층 / 건물 35평 / 코너 / 주차장	모텔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상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매매	수익형 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답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모텔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암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